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부산대 페인팅사건 전말기



이 상 경_ 부산대 철학과 78학번, 친구 출판사 대표, (주)홍익미디어 총무이사, (주)산성미디어 / 자인출판사 대표(현)

긴급조치라... 뭐가 그리 급했으면 그 긴급한 조치라는 걸 무려

아홉 개씩이나 줄줄이 발동하면서까지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에 재갈을 물렸던 것일까. 부정한 독재 권력에 의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다.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일터와 학교에서 쫓겨났다. 아만의 시대, 암흑의 시대, 역사가 숨죽인 시대...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어김없이 저항의 불꽃은 타오르는 법,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살을 발라 불꽃에 기름을 보탤다. 나는 그 자랑스러운 사람들 중의 말석에 끼인 자, 영광스럽다. 그 시대를 거쳐 온 내 청춘의 삽화들을 통해 그때를 추억해 본다.

1.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웃해 사시던 친척아제 한 분이 어느 날 신문에 났다. 일면 톱기사 제목 옆에 동그란 사진으로. 그 옆에는 무슨 표가 그려져 있었고 화살표가 이리저리 얽혀 있었다. 지금은 대부분 조작으로 밝혀진 소위 간첩단사건이었다. 하지만 그 엄혹하던 시절, 그 일은 적잖은 충격이었다. 아제는 너그럽고 인자하셨을 뿐만 아니라 먼 친척인 우리한테도

그렇게 살기울 수가 없던 분이였다. 집안 어른들께서는 쉬쉬하는 분위기가 역력했고 깊은 밤 장탄식을 하시는 아버지의 한숨소리는 어린 내가 듣기에도 매우 고통스러웠다. 덜 여문 머리로 주위들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그 아제는 일제 때와 해방 전후에 혁신계 운동에 몸담았던 분이셨다.

평소 아제가 어린 우리를 모아놓고 넉넉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던 우스운 옛날 이야기, 훌륭한 위인들 이야기,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라는 이야기..., 나는 이 세상에서 아제가 가장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었다. 한테 간첩이라니!

내가 아무리 반공교육을 충실히 받은 중당이었던더라도, 그래서 간첩이라면 빨달린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착한' 청소년이었던더라도 '그럴 리는 없다'는 게 나의 결론이었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신문에 난 거라고 해서 다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아주 막연하게나마 나라가 왜 죄없는 사람을 이렇게 무참히도 짓밟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제와는 내가 부림사건으로 징역을 살 때인 1982년 대전교도소 복도에서 만나게 된다. 십수 년이 훌쩍 지난 그때에도 나를 한눈에 알아보시고 "상경이 아이가?" 하시며 망연해 하시던 그 모습과 음성이 지금도 생생하다. 이 기가 막히는 이야기를 여기서 다 쓸 수 없는 것이 아쉽다.)

2.

방학이 되면 대학생이었던 집안 형들이 모여 쑥덕거리기 일쑤였다. 형들은 나를 한사코만 방으로 내몰았지만 나 또한 한사코 탄청을 피며 구석에 끼어 이야기를 엿들었고 그 재미는 또래들과 어울려 놀 때의 그것과는 전혀 달랐다. (가끔 연애이야기도 곁들여졌는데 아, 어찌나 감미롭던지... 이야기 듣는 내 가슴이 다 뛰곤 했다.) 형들이 소리를 낮춘 채 주고받는, 대부분 알아먹지도 못할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분위기만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비밀스러움, 열기, 가끔씩 터지는 한숨과 웃음... 나는 형들이 그렇게 멋있게 보일 수가 없었고 나도 크면 형들처럼 되고 싶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청년이 되고 싶었다.

3.

그 무렵 동네 친구 녀석 중 한 명이 어느 날 딱하니 '로동신문'을 한 장 들고 나왔다. 자기

형이 중앙정보부에 근무하는데 갖고 온 거라고 했다. 그리고 북한 담배도 한 갑 들고 왔고, 담배의 이름은 ‘영광’이었다. 하얀색 껍에 아무런 그림도 없이 달랑 초록색의 둥근 고딕체로 얇전하게 박혀 있던 ‘영광’이란 글자, 글자 주위에는 네모지게 테가 둘러져 있었다. 우리는 골목 구석에 등그렇게 모여 앉아 머릴 치박고 그 희귀한 물건을 구경했다. 돌아가며 담배도 한 대 꼬슬렸는지 모르겠다. 지금이야 아무것도 아닐 테지만 70년대 초에 ‘북괴’의 신문과 담배라니! 그 희귀한 것이 철부지들의 눈앞에 놓여진 경위치고는 다소 황당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 다만 신기할 뿐이었다. 사진도 없이 뻑뻑하게 활자만 들어 찬 신문은 갑갑한 느낌이라서 별 감흥이 없었지만 담배는 달랐다. 단정하게 마무리된 껍도 그랬지만 필터까지 달린데다가 필터부분에 상큼하게 인쇄된 띠며 글씨들이 꽤나 세련되게 보였다. 강냉이 죽으로 연명하고 오로지 무기만을 만들어서 남침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배운 북괴가 만든 담배는 당시 아버지께서 피시던 백양이나 아리랑보다 못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월남에서 보내져온 C-레이션 속의 양담배와 더 닮아 있었다.

“북괴 새끼들도 담배는 잘 맵근다, 그자?”

“그래…; 깔삼하다.”

“이 새끼들, 밥은 굶어도 담배는 조은 거 피우는 갑다.”

이런 쓰잘 데 없는 이야기들도 주고받았으리라. 하지만 가슴 속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막연한 의문이 피어올랐다.

4.

학년이 올라갈수록 막연한 의문의 목록은 차츰 늘어났다. 동시에 단편적이긴 하지만 유신 독재 권력의 부당함에 대한 ‘원시적 분노’도 서서히 자라났다. 중3 겨울이었던가, 서면 로타리의, 지금은 없어진 청학서림 책꽂이에서 금서였던 김지하의 시집 <황토>를 발견하고 가슴을 쿵닥거리며 책값을 치렀을 때 서점 주인이 “중학생이 어째 이런 책을 아노?”라고 물었다. “그냥…”이라며 말꼬리를 흐리긴 했지만 김지하란 저항의 상징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뿌듯했다.

그리고 그 무렵 읽게 된 요산 김정환 선생의 <인간단지>라는 소설집. 나는 정말이지 ‘꼭지

가 확 돌아’ 버렸다. 모래톱 이야기, 인간단지, 뒷기미 나무, 수라도, 사하촌, 산거죽 이야기… 이런 소설들은 청소년이었던 내가 간직하고 있던 원시적 분노가 얼마나 타당한지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지침이 되기도 남았다. 산거죽 이야기에 나오는 한 구절, “사람답게 살아가라!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불의에 타협한다든가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람이 갈 길이 아니다.” 이 말은 바로 나를 향해 던지는 말로 들렸다. 비록 거칠었지만 그런 독서를 통해 나는, 실패로 귀결됨으로써 우리 현대사의 기본적인 질곡으로 자리 잡은 친일잔재 청산의 문제, 힘없고 가진 것 없는 민중에 대한 신뢰와 애정, 인간성의 왜곡과 타락을 불러오는 근대화 정책의 허구성, 불의에 굴하지 않는 삶의 태도 등에 관해 초보적인 학습을 한 셈이었다.

5.

고등학교를 입학하던 해인 1974년 봄, 민청학련 사건이 났고 집안의 형 한명이 고등학교 3학년 신분으로 그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가는 일이 벌어졌다. 다소 꺾렁꺾렁하던 그 형은 재수 끝에 부산의 명문인 부산고등학교에 적 붙어서 주위를 놀라게 하더니 그 일로 또 한번 주위를 놀라게 한 것이었다. 우락부락한 외모와 달리 문예반에서 주옥같은 글을 쓰던 형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꾸렸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고3이란 이른 나이에 감옥엘 가고 퇴학당하는 일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이제는 그 일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게 됐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동아대학에 다니던 친형이 유신철폐시위를 주동해서 한 달간 구류를 살고 나와 군에 입대했다. 나와 한 방을 쓰면서 한없이 다정다감했던 형의 구류와 강제징집은 나로 하여금 ‘박정희, 이 개새끼!’에 대한 사적인 복수심까지 생기게 만들었다. 고2가 되면서 나는 학교가 시시해졌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졸라 <창작과 비평> 과월호를 몽땅 구입해 읽었다. 황석영의 소설들이며 마산/창원 수출자유지역공단 르포르타주 특기 기억에 남는다.

나는 이미 충분히 ‘문제학생’이었다. 문예반활동을 하면서 시화전에 내 건 시 때문에 담당 선생님을 난처하게 만들고(결국 철거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지만), 현대시를 배우던 국어시간

에는 왜 참여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느냐고 대들었다. 또한 친한 친구들한테는 잘리기 위해 대학을 가겠노라고 공공연히 떠들었다. 사실이 그랬다. 그때 나는 대학생의 유일한 존재 가치는 독재에 항거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고 내가 대학교를 무시히 졸업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세상이 돈짜만 하게 보였고 잘하면(!) 뒤집어엮을 수 있을 듯이 보였다.

나이가 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당시 나의 그 주체할 수 없었던 분노에 대해 좀 민망한 생각도 들고,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않으며, 이 땅의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는 아직도 치러야 할 노력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적어도 그땐 그랬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내가 거쳐 온 시대가 좀 더 젊은이들에게 너그러웠더라면 하는 점이다. 나와 동년배인 유시민 씨가 저 유명한 항소이유서에서 학생운동 전반을 옹호하면서 학생운동에 뛰어들 학생들을 증빨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가장 온순한 인간들 중에서 가장 열렬한 투사를 만들어 내는 부정확한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갈파한 바 있고 나 또한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개인의 특별한 자질이나 호오에 관계없이 정신 제대로든 녀석들은 하나같이, 강박처럼 스스로의 자리를 싸움의 대열에 위치지워야 했던 데 대한 아쉬움이다. 이건 후회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하긴 개뿔..., 박정희 치하에서 너무 사치스런 걸 바라는지도 모르겠다.

6.

재수 끝에 나는 부산대학교 문리대 인문사회계열에 입학했다. 78년이였다. 데모 한 번 못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데친 개구리 좇 마냥 조용하지만 한 부산대학엔 참으로 가기 싫었지만 재수 끝에도 성적은 신통치 않았고 어려운 집안 형편에 국립대학 외엔 인감생심, 엄두도 못 내던 터라 부산대학에 갈 수밖에 없었다. 한데 가 놓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이미 부산대학교에서 열심히 언더 서클을 꾸리고 있던, 고등학교 한해 선배인 고희석 선배가(이분은 부림사건으로 징역을 살고 나와 열심히 재야운동을 했다. 지금은 전교조 부산지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나를 점찍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할 일이 많다는 거였다. ‘그래.., 한 3년만 열심히 하자. 어차피 졸업은 안 할 텐데 3학년 때 한판하고 나가면 되지’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마음먹으니 오오웃... 물 만난 물고기가 따로 있으랴, 입학하자 말자 나는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녔다.

당시 부산에서는 이렇다할 대규모의 조직적인 움직임이나 시위는 없었지만 시절이 시절이다 보니 여러 곳에서 분산적으로 반유신 투쟁들이 모색되고 있었다. 우선 중부교회가 있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최성묵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시던 그곳의 청년부는 이미 구속자를 배출하고 활발히 활동 중이었고 부산이 고향인, 서울지역 대학교에 다니다 제적되거나 징역을 살고 나온 선배들이 소규모 학습모임을 꾸리고 있기도 했다. 또 양서이용협동조합이라는 독특한 운동체가 막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기도 했다.

나는 우선 확보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앞서 말한 선배와 함께 학습모임을 만들었다. 모임 장소는 내가 다니던 남부교회 쪽방이었다. 커리큘럼은 선배가 갖고 왔다. 레오 후버만, 모리스 뚝, 토스테인 베를렌 등 처음 듣는 선생^^들이 많았다. 학습이 끝나고 나면 밤새 소주잔을 기울이며 토론하고 노래를 불렀다. 새벽녘, 담배연기가 가득 찬 방에서 빠져나와 희뵤한 하늘을 보며 시원하게 오줌발을 날릴 때면 어린 마음에 저만치 ‘혁명의 신새벽 이 밝아오는 듯한 뿌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그해 4월 17일 중부교회 청년부에 소속된 부산대생들이 민주투쟁 선언서를 살포한 유인물 사건이 있었다. 4명이 구속되었다. 살이 부르르 떨렸다. 친구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사찰하던 상담지도관의 집 전화번호를 빼내어 새벽에 협박전화로 떼거리로 걸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동일방직 사건을 알리는 유인물을 흘리기도 하고... 나는 방방 뜨는 일학년이었다.

이렇듯 가히 질풍노도와 같은 나의 대학 첫 학기의 시간들이 흘러갔다. 일 학기를 마칠 무렵, 학교는 거의 종강을 하고 기말고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한데 7월 1일, 난 데 없고도 뜬금없이 대통령 선거공고가 발표되었다. 소위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간접선거 방식으로 장충체육관에서 7월 6일에 대통령 뽑기를 한다는 거였다. 유신헌법이 천하의 악법임은 익히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지,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무슨 아이들 반장선거나 또 뽑기도 아닌 다음에야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공고기간을 거쳐 뽑다니... 나는 순간적으로 한없이 쪽팔리고 자존심이 상하고... 한마디로 참담한 느낌이었다. 독재도 좀 격조 있게 해야지 이건 뭐... 아무리 국민을 만만한 흥어 좇으로 보아도 이럴 수는 없다 싶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지나간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그 선거는 변방의 한 철없는 열혈 청년의 분노와는 상관없이 예정된 날짜인 1978년 7월 6일 무사히 치

러졌다. 재적 대의원 수 2,583명 중 2,578명이 출석하여 단독후보인 박정희가 2,577표를 얻어 득표율 100%로 당선되었다. 장하다, 박정희! 그리고 무효 처리된 1표는 글자를 전혀 모르는 모 대의원이 엉뚱하게 기표해서 나왔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한국적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그 잘난 유신은 이런 시대였다.) 나는 마구 씨근덕거리며 고호석 선배를 찾아갔다.

“형, 이기 머요. 한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니 맘 안다. 그래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라고 지금은 데모가 되지도 않는다. 시험 기간 아이가? 희생만 생긴다.”

“희생 없이 되는 거 있소? 희생하는 거 무섭어서 일 문 한다 카면 되는 거 머겠소.”

“잔소리 말고 가만있어라. 지혜롭게 싸우자.”

“지혜로운 것도 좋지만 내는 가만 못 있소.”

선배는 나를 극구 말렸다. 그리고 나도 명색이 운동한다는 놈으로서 그 선배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도저히 내가 나 스스로를 만류할 수가 없었다. 어쩌면 그것은 그간 너무 오래 동안 눌러왔던 내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이었는지도 몰랐다. 나는 전술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 분노는 정당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나는 훌륭한 활동가는 아니었다. 다만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발산하지 못해 어쩔 줄을 모르는 열혈 청년이었을 뿐이었다. 물론 부정한 시대와 독재자를 향한 분노 그 자체는 옳다고 하더라도 나의 그런 억지스러운 태도는 비난 받을 만 했다. 한데 이상한 것이, 나 스스로도 그런 점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못 참겠는 걸 어쩌란 말인가.

나는 남부교회로 갔다. 거기엔 나의 중, 고등학교 동창들이기도 하고 일찍이 삶과 역사에 대한 고민으로 학교도 때려치우고 함께 학습하던 친구들이 두 놈 있었다(두 친구는 이 일로 나와 함께 징역을 살고 나와 뒤늦게 부산대 심리학과와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이희섭은 환경사진 작가로, 김승영은 영어학습서 저자로 활동하고 있다). 유유상종이라 했던가. 그 친구들은 두말없이 동조했다. 우리는 일사천리로 모의를 시작했다. 학교의 분위기 상 조직적인 대규모 시위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 게릴라 전법을 쓰자. 가장 효과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끝에 나름대로 전례가 없는 방법을

고안해 냈다. 페인팅 벽서!

부산대학은 신정문을 들어서면 바로 대운동장이 있고 그 정면에 본부석 스탠드가 있는데 등교 길에 반드시 마주치게 되어 있었다. 야음을 틈타서 그 벽에 대문짝만하게, 쉽게 지우지 못하도록 페인트로 격문을 써 놓자는 거였다. 아무리 시험기간이라지만 그 격문을 보고 흥분하지 않을 청년 학도 놈 있으랴! 분위기가 뜨고 질만 하면 자연발생적 시위도 도모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일석이조, 썩 먹고 알 먹고(지나 놓고 보니 참 순진하기도 하지. 당시엔 학교 안에 사복 째새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었는데 그걸 온 학생들이 다 보도록 방치해 놓을 놈들이 아니라란 걸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아무리 페인트라 한들 덧칠하면 간단히 지워지는데 말이야. 본부석을 몽땅 허물기 전에는 도저히 못 지우도록 아예 정으로 쪼아 새겨놓자는 안이 안나온 게 다행이었다. 조금만 더 생각하면 너무도 당연한 것도 그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으니...)

우리는 준비에 들어갔다. 페인트는 분무기형으로 샀다. 이 분무기 페인트 아이디어는 이브 몽땅이 나오는 프랑스 영화 '타 미너스'를 보고 얻었다. 그 영화에서 범인이 사건을 저지르고 난 뒤 수사관들을 교란할 목적으로 사건 현장에 붉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뒤리고 휘갈겨 적는 장면을 봤을 때, '음... 언젠가는 저거 한번 써 먹어야겠군'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 기회가 너무 일찍 찾아온 셈이었다. 하긴 후다닥 해치우고 날리아하는 상황에서 어느 세월에 뽕까통에 붓 찍어서 글씨를 그린다 말인가. (이 스프레이 페인팅은 그 후에 각종 시위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는 걸 보았는데 그 원조격인 우리로서는 여간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희섭이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냈다. 페인팅을 하고 있을 때 망을 보아야 할 텐데 누가 오더라도 하면 고함을 지를 수야 없으니 무전기 같은 통신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였다. 한데 무전기를 어디 구할 수가 있나. 궁즉통이라고 음악에 조예가 깊어 오디오에 해박하던 희섭이가 답을 냈다. 무선 마이크와 FM라디오만 있으면 된다는 거였다. 이 두개의 주파수를 같이 설정해 놓고 라디오를 켜두면 일이백 미터 정도의 거리에선 마이크에 대고 소곤소곤 말하는 것도 라디오를 통해 다 들린다는 거였다. 옹그러니! (이 수법은 훗날 자취하는 후배 녀석들이 옆방에 세 들어 있던 신희부부 방에 무선 마이크 숨겨놓고 지들 방에서 라디오로 엿듣는 방식으로 응용 되는 것을 보고 난감했던 기억이 있다.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합니다. _-:))

우리는 사전 답사, 시간 체크, 퇴로 확보, 첨단 하이테크 장비 구입 등 만반의 준비를 끝내

고 드디어 7월 6일 밤 11시 50분경, 도서관에서 향학열을 불태우고 쏟아져 나오는 선량한 학생들을 거슬러 학교로 숨어들었다. 괴괴한 정적만이 감도는 컴컴한 본부실에서 나는 팔을 움직여 쓸 수 있는 최대한의 크기로 또박또박 격문을 써 나갔다.

유신철 폐 교련반대 박정희 물러가라

글자 높이 1미터가 넘고 길이는 10미터가 넘는 대형 벽서였다. '칙칙' 하는, 페인트 내뿜는 소리가 내 귀엔 마치 굉음처럼 들렸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것도 잠시, 우리는 점점 간이 커졌다. 그리고 페인트 통을 흔들어 보니 아직 한참이나 남은 게 아닌가. 기왕에 온 거 페인트가 바닥날 때 까지 닦히는 대로 써 갈기고 싶은 충동이 와락 생겼지만 후퇴하기로 했다. 그래도 아쉬운 김에 퇴로로 보이든 운동장 옆 개구멍 부근에 있는 야구장 백넷과 스탠드에도 두 친구가 각각 큼직한 필적을 남기고 빠져나와서 택시를 탔다. 통금 시간인 밤 12시를 좀 넘긴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좀 일찍 학교에 가보니 우리의 벽서는 커다란 종이에 가려진 채 보이지 않았고 째새들 대 여섯 명만이 그 앞을 지키고 있었다. 이럴 수가! 학생들이 그앞에 구름떼처럼 몰려서 웅성거리며 주동자만 나서기를 기다리는 그런 장면을 상상했는데 이런 허무한 일이 있단 말인가! 나는 순간적으로 맥이 탁 풀렸다. 그리고 오전 10시쯤 째새들이 지키는 가운데 페인트공이 밀대 붓을 들고 전지를 한 장 한 장 떼어내며 글씨들을 차례로 쓱쓱 문대버렸다. 그곳에서 간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한 채 학생들은 무심히 그 곁을 지나 다녔고 흥하게 덧칠한 자국만이 스탠드 벽에 남았다. 나는 멀리서 그런 광경을 지켜보면서 왠지 마음이 착 가라 앉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입소문으로도 그 사실을 알려야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읊고 다녔고 그것이 역추적을 받아 붙잡히는 빌미가 되었다. 내가 보다 치밀하고 훈련된 활동가였다더라면 이 사건은 거의 완전한 성공작으로 남을 수도 있었지만 당시 나의 감량이 그렇지는 못했던 것이다.

7.

이른 나이에 산 징역은 나에겐 참으로 커다란 학교였다. 부모님과 형님의 눈물겹도록 헌신적인 옥바라지 덕분에 그리고 감옥 안에서 만난 수많은 훌륭한 선배들 덕분에 나는 습자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살아 있는 경험과 지식을 흡수했고 좀 더 성숙해 질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듬해인 1979년 7월 17일 제헌절 특사로 일 년 사흘 만에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8.

그 후로도 나는 1980년 5월과 1981년 부림사건, 그리고 1988년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펴낸 책 때문에 각각 한 번씩, 징역을 세 번이나 더 살아야 했으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기라성 같은 독재자들과의 악연은 참으로 길고도 질겼던 셈이다. 으... 씨팔놈들!